

## 特許廳 化學物質特許制度세미나

—11.4, 100餘名參席 關心反映—

特許廳은 研修室에서 11月 4日 廳職員, 辨理士, 企業의 特許專擔要員 등 100餘名이 參加한 가운데 化學特許特許制度에 관한 세미나를 開催하였다.

우리 나라가 80年代에 접어들어 그동안 이룩한 經濟成長을 바탕으로 先進工業國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新技術·新製品開發과 함께 先進國으로부터 尖端技術의 導入이 必要하였으며 開放經濟政策이 要望되었다. 그러나 先進國은 自國產業保護를 위해 尖端技術移轉을 기피하고 技術移轉의 前提條件으로 우리나라에서의 物質特許許容을 要請하고 있다.

그런데 物質特許許容 與否는 研究開發力이 미흡한 우리나라 業界로서는 企業의 死活이 달린 重要關心事일 뿐 아니라 開放經濟政策 및 尖端技術導入과 관련하여 하나의 難題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特許廳은 各界의 意見을 들어 物質特許制度에 관한 問題點을 토출키 위해 이번 세미나를 開催한 것이다.

이 세미나에서 韓國化學研究所 蔡永福박사는 우리나라 企業은 아직 新프로세스開發段階에 머물고 있으므로 向後 5~10년이 지나 新規物質開發能力을 保有하게 될 때 비로소 物質特許制度를 導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株)鍾根堂의 白于玟 理事는 하나의 新藥品開發에는 先進國의 경우 보통 10年の 期間과 5,000萬 달러의 막대한 費用이 所要되며 따라서 영세한 우리나라 製藥業界는 현재로서는 外國과의 新藥開發競爭에서 이길 수 없으며 物質特許制度가 採擇되면 外國의 物質特許獨占과 높은 로열티 支拂로 인한 가격상승을 가져오며 오히려 外國에의 技術依存度를 가속화시킬 뿐이므로 아직 物質特許許容은 時期尙早라고 主張했다.

## 特許抗告審判管轄問題表面化

—서울辯護士會·辨理士會 攻防—

서울地方辯護士會(會長:李丙昊)는 行政廳인 特許廳의 處분에 대하여 高等法院을 經由하지 않고 大法院으로 直接 上告케 한 것은 違憲이며 法律審인 大法院에 上告하기 前 高等法院에서 法官에 의한 裁判을 통해 事實關係를 確定하는 것이 國民의 權利保護에 보다 適合하다는 理由를 들어 다음의 內容을 主要骨子로 하는 工業所有權法改正法律案을 法制處에 提出했다.

1. 抗告審判所(2審)에서 處理하던 特許·實用新案·意匠·商標에 대한 無效審判·權利範圍確認審判등에 대한 不服抗告審判과 特許, 實用新案權의 通常實施許與審判, 訂正許可審判, 訂正許可無效審判, 意匠에 대한 通常實施許與審判, 商標取消審判 등에 대한 不服抗告審判을 서울高等法院의 專屬官轄로 한다.

2. 抗告審判所에서 처리하던 特許, 實用新案, 意匠, 商標에 대한 査定不服抗告審判을 審判所에서 처리하고 審判所의 審決에 대한 不服은 서울高等法院의 專屬官轄로 한다.

3. 辨理士는 서울高等法院에 專屬하는 審判사건에 대하여는 當事者나 許訟代理人과 함께 出廷하여 진술할 수 있다.

4. 서울高等法院에 專屬하는 사건은 職權審理主義 등 行政訴訟法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法院組織法 및 民事訴訟法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에 대하여 大韓辨理士會(會長:李俊九)는 對策을 講究키 위해 11月 4日 긴급 臨時總會를 열고 서울地方辯護士會의 改正案에 대해 하나하나 反對理由를 열거하여 論駁하고 決議文을 採擇·發表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抗告審判制度에 대한 代案을 내놓았다.

1. 暫定的으로 現行抗告審判制度를 다음과 같이 補完한다.

形式的인 審判의 獨立規定이 있으나(特許法 第101條第3項) 身分保障이나 資格基準이 法律로써 保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制度의 實質의 效果를 期待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事項을 모두 法律로써 規定하는 補完措置를 한다.

2. 長期的으로 獨立된 特許抗告審判所(假稱)를 設置한다.

1) 特許廳과는 獨立된 特許抗告審判所를 設置하되 商工部長官 직속으로 한다.

2) 特許抗告審判所設置法을 制定하되 審判官의 資格基準과 身分保障, 審判의 獨立性과 그 處遇 등에 關하여 法官의 경우와 같이 法律로써 定한다.

3) 理想的이고 合理的인 制度를 新設하기 위하여 多少의 豫算이 所要되는 것은 不可避한 일이며, 現任의 抗告審判所의 豫算과 使用施設의 規模에 若干의 豫算이 追加된다면 獨立된 特許抗告審判所의 新設이 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 外國商標盜用規制強化

—279社 461件 盜用事例摘發—

政府에서는 商標의 合法使用으로 去來秩序를 바로 잡고 外製에 대한 選好가 강한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해 外國商標의 無斷 사용에 대한 規制를 強化할 것으로 알려졌다.

全國에 걸쳐 外國의 有名商標盜用團束에 나선 商工部는 세리스, 던힐, 피에르카르맹 등 外國商標를 盜用한 279個 業體의 盜用事例 461件을 摘發하여 10月中에 是正토록 경고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프랑스 特許協會 서울事務所는 서울, 釜山, 大邱 등 大都市에서 프랑스의 有名商標를 盜用한 136個 業體를 摘發한 것으로 알려졌다.

## 局設電子交換機 百萬回線突破

—三星半導體, 輸入代替 25,000萬弗—

三星半導體通信(株)(代表:姜晋求)은 지난 1979年 서울 永東, 堂山電話局 開通으로 우리나라에 電子交換時代를 연 이후 1983年 10月 29日 釜山鎭電話局에 2萬回線의 電子交換機를 開通시킴으로써 設置 實績은 모두 63個 電話局 101萬回線을 突破했다.

그동안 三星半導體通信은 尖端技術인 電子交換機의 設計에서부터 生産, 設置, 試驗, 運用에 이르는 全般技術을 自立하고 部品の 國產化率을 初期의 5%에서 現在 73%까지 提高하여 輸入完製品에 비해 低廉한 價格으로 優秀한 製品을 生産, 供給하게 되었다. 그간 150여만회선의 電子交換機를 生産하여 25,000萬달러의 輸入代替效果를 가져왔으며 國產部 品 購入費만도 年間 200億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그간 固疾化되어 온 電話積滯를 크게 解消하였고 電話를 통한 各種 特殊서비스가 可能해졌을 뿐만 아니라 高度情報社會에 相應한 通信體制構築이 可能하게 되었다.

## 金星社 新技術製品展示會

—光通信 등, 11. 9~11 하얏트호텔서—

株式會社 金星社(代表:許愼九)는 創立 25周年을 마지하여 지난 11月 9일부터 3日間 서울하얏트호텔에서 新技術製品展示會를 가졌다.

개막 첫날인 9일에는 各界人士 700여명이 參席, 盛況을 이루었다.

金星社 및 8個姊妹會社의 컴퓨터를 비롯한 光通信 衛星, 放送시스템 등 尖端技術製品이 소개된 同 展示會는 延人員 9千 여명의 觀覽人員을 動員, 盛況裡에 끝났다.

同社는 12月中에 大邱, 釜山, 光州 등 3個都市에서 同 같은 류의 展示會를 가질 豫定이다.